

통합파 합당 위해 당헌 바꾸고 반대파는 오늘 집단탈당

국민의당 막바지 분당절차

국민의당이 결국 분당의 길을 간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파는 전당대회 대신 전(全)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통해 합당 의결을 마무리 짓고 통합에 나선다. 이에 맞서 반(反)통합파는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을 위해 5일 집단탈당을 결행하며 결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의당은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민의

8~10일 합당 전당원 투표

13일 바른정당과 통합 완료

민평당, 당 로고 공식 발표

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방식을 전당대회가 아닌 전(全)당원 투표로도 가능하다는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어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전당원 투표를 관리하는 중앙당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위는 정부 중앙선거위원회에 케이보팅(K-voting·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 위탁, ARS투표 업체 공모 등을 통해 전당원 투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전당원 투표는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8~9일 케이보팅(K-voting·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 10일 ARS투표 등이다. 10일 투표가 끝나면 이튿날인 11일 오전 투표 결과가 취합되며, 같은 날 오후 중앙위가 재차 소집돼 전당원 투표 결과를 추진하는 등 합당 결의의 건, 수입

기구 설치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바른정당은 예정대로 오는 5일 전당을 통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결의한다. 이후 두 당은 오는 13일 통합을 최종 마무리한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인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안 대표 측보다 앞서 신당을 띄워 유권자들의 관심을 선점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세 규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둘기와 촛불을 형상화 한 당

로고를 공식 발표했다.

박주현 의원은 "당명인 민평당, 당 상징색인 녹색, 당 로고가 상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평화 실현하는 열망"이라며 "이를 통해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5일에는 민평당에 합류하는 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탈당 의사를 밝힌다. 현재 지역구 의원 가운데 민평당 창당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준영·윤영일·이윤

주·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4명이다.

여기에 황주홍 의원이 합류를 선언했고, 또 합류 가능성이 있는 이용호, 손금주 의원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최대 17명이 '민평당호'(號)에 승선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비례대표여서 탈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박주현, 장정숙, 이상돈 의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평당은 오는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당 대표는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



국민의당 창당 2주년 기념식에서 축하 케이크를 먹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주현, 이동성, 안철수, 정진영, 주승용, 채이배, 김중로 의원. /연합뉴스

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유력

민평당 대표 초선 내세울 듯

국민의당 분당과 함께 '미래당'과 '민주평화당'(민평당)의 창당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두 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당 지도부는 2인 공동대표 체제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대표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당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신당 대표를 맡지 않기로 함에 따라 최근 미래당 합류를 선언한 박주선 국회의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의원 등 국민의당 중재파 3인방에서 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안 대표가 결정할 문제지만 유 대표와 박주선 부의장 조합으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 같다"며 "광주와 대구가 만나 '지역 장벽'이라는 철옹성을 깬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재파 3명 중 한 명이 대표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불가피함은 있지만 박 부의장이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신당 대표로 맞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평당 역시 오는 6일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합의 추대한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 4인과 원내대표, 여성·청년 대표 등 모두 9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단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천정배 의원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선 의원을 신당 대표로 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파격적인 첫 출발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초선 대표 후보군으로는 김경진·최경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 의원의 대표직을 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김경진 의원을 적임자로 공개 추천했다. 또 창당준비위원장이 조배숙 의원이 그대로 초대 대표까지 맡을 가능성도 있으며, 장병완·유성엽·황주홍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씨앗 뿌린 광주형 일자리 열매 맺겠다"

윤장현 광주시장 출판기념회 재선 도전 공식화

윤장현 광주시장이 출판기념회(사진)를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3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책 '광주형 일자리 제1 성공시킴'을 출판기념회를 통해 열었다.

특히 윤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국내 외 굴지의 기업들이 광주 투자를 앞두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광주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광주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재명 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시장은 시각자료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청년'을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일지러는 단순히 한 사람

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가정과 마을,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인체의 척추와 같다"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첫째 목표는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끌어오는 것이고 둘째는 노사 상생을 통해 기업 하기와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윤 시장은 "기업은 적정 임금으로 좋은 인력을 얻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얻는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가 없거나 청년이 떠나면 광주는 날아갈 수 없다. '일자리'와 '청년'은 광주가 미래를 향해 날아갈 '좌우 날개'인 만큼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겠다"면서 "히말라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막 물이 끓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평당 캐스팅보트 질까... 19~20석 확보 여부 촉각

20석면 범진보 과반 확보

조배숙 "매직넘버 달성 충분"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38석의 국민의당이 분열되면서 국회 의사결정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과 합당으로 탄생할 미래당과 통합 반대파인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추가 의석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평당 측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의석수는 2~3석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7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9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3석(정세균·이정현·이용주·지난 1일 탈당)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 의석수는 더

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에 정세균 의장의 1석을 더해 129석이다. 재계 과반에 20석이 부족하다.

미래당은 이미 20석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통합산당 합류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 의원(14명)과 바른정당 의원(9명)을 합해 총 23명이다. 하지만, 미래당의 성향을 볼 때 여권에 우호적인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국회 의사결정 구도를 좌우할 핵심 관건은 민평당이 19~20석을 채울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석이 되면 범진보 129석에 합할 경우 148석으로 보수진영이 야당의 표를 모아 국회 권력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의 힘을 갖게 된다. 나아가 20석이 되면 과반을 확보, 진보진영에 힘을 실어 주면 여권이 추진하는 일을 국회에서 가 능토록 해준다.

이와 관련,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평당 참여를 선언한 의원은) 현재까지 18명이고 이용호 의원도 결심해 줄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해서 19명이다. 그 외에도 몇 명 더 올 수 있다"며 "민평당이 국회 캐스팅보트를 질 수 있는 매직넘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17명(비례대표 박주현·장정숙 의원 포함) 외에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합류하고 또 다른 비례대표인 이상돈 의원까지 포함해서 나온 계산서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민평당으로 공식 합류가 불가하지만 표결은 민평당과 같은 입장을 보일 것 이란 예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중도파로 남아 있는 송기석·손금주·이찬열·김성식 의원의 선택도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평화! 평창! 하나된 우리!

평화올림픽! 평창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

광주광역시교육청